

제2강 서경의 전개

(1교시)

◆동북아 사상의 전사前史 II-서경의 성격과 구성

※학습목표: 동북아 사상의 전사를 역易 중심으로 살펴본다.

▲서경의 성격

서경은 일종의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발문들이 많이 보이는 책이다. 그러므로 기록적인 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서로만 볼 수 없다. **역사서이지만 유교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건들을 중성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 명제를 전제하고 기존의 역사를 구성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문헌학적 논쟁을 낳은 책이기도 하다.

▲서경의 전개

서경은 하·상·주 삼대의 일들을 적어놓고 있다. 그래서 크게 우하편(禹夏篇), 상(商)편, 주(周)편으로 나뉜다. 그 시간적 범위는 요순(堯舜)에서 시작해서 서주에서 동주로 천도할 때까지이다.

우하서는 요·순·우 세 임금의 치적들이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 학자들이 성인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서립한 문헌으로 보는 것이 옳다. 상서는 상나라의 시작, 중흥, 쇠락을 담은 책이다. 하나라가 아직까지는 전설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상은 갑골학의 발달로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주서도 상서와 마찬가지로 주나라의 세위짐과 무너짐을 다루고 있다.

한편 우하상서가 내용상으로는 앞서지만 작성된 연대는 오히려 이후이며, 주서는 내용상으로는 후대의 일이지만 작성된 연대는 오히려 앞선다. 그래서 주서가 역사적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2교시)

◆동북아 사상의 전사前史 Ⅲ-서경의 내용과 사의 등장

※학습목표: 서경의 내용을 살피고 사계층의 등장 의미를 본다.

▲홍범洪範과 여오旅獒

홍범은 무왕이 상을 무너뜨린 후 기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기자가 임금에게 지어준 글이다. 기자의 이 글은 세상에 조재하는 모든 것을 분류한 것으로,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定·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과 六極이 그것이다. 범주라는 말도 이 편에서 나오고 훗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오는 소공이 무왕에게 훈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화이관 성립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주공周公

주공은 서경의 주인공격인 인물이며 무왕의 동생으로, 무오아의 아들 서왕에게 충성을 바친 명신이다. 주공의 사상은 공자에게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경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닌 유교적 가치에 의해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주공이 주인공으로 선택된 배경이다.

[치효鴟梟]

鴟梟鴟梟(치효치효)

既取我子 無毀我室(기취아자 무훼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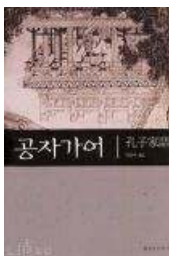
恩斯勤斯 粥子之罔斯(은사근사 죽자지민사)

울빼미야! 울빼미야!

내 자식 잡아먹었으면 내 집일랑 헐지 마라.

안타까이 기러 온 어린 자식이 가없도다!

참고자료.



『공자가어』 이민수역, 을유문화사

▲천하무도의 시대와 土의 등장

-서주와 동주

주는 고전 문화를 많이 발달시켰으며, 훗날 중국인들은 주를 자신들의 지적 고향으로 생각

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서주와 동주는 그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주가 한번 망하고 다시 성립하는데 그 앞을 서주라 하며, 그 뒤를 동주라 한다. 그리고 동주는 사실상 춘추전국시대로 볼 수 있다. 또 공자는 이를 가리켜 천하무도의 시대라 하였다.

-농업혁명

동북아의 역사는 땅을 둘러싼 역사이다. 특히 전통사회에서의 농업혁명은 사회 전반이 달라지게 만든다. 이 같은 농업혁명은 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철기의 발달, 우경, 분뇨의 사용, 이모작 등이 농업혁명을 일으킨다.

농업혁명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 자영농은 소작농이나 부농이 되고 이로 인해 중간층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사士の 등장

동북아 고대사회의 계층은 보통 왕, 경, 공, 대부, 사로 구분된다. 그런데 **춘추전국시대에 와서 士계층의 위상이나 역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증가한다.** 어떤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흔들리고, 계급분화가 촉진되고, 문화가 복잡하게 발달하면-이른바 지식인 계층·전문가 계층이 등장한다. 그리스에서는 이 계층이 Sophistes이고, 동북아에서는 士계층이다. 과거에 巫와 史 두 계층이 권력을 잡았지만, 이제 士계층이 실질적일들 전부를 하게 된다.

사실 언어·문자라는 것은 특권적인 것이다. 그래서 학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는 사학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춘추전국시대는 사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바탕으로 난세를 치세로 바꾸려는 사상가들이 붓물처럼 나온다. 그 최초의 위대한 스승이 공자이다.

참고자료



사마천 『사기열전』 연변대학 고전연구소역, 서해문집



공자(BC552~479, 사상가)